

참새 닮은 노란꽃 만개...해남 산이정원 ‘금작화 페스타’

이달 31일까지...산책길 따라 흐드러진 황금빛 파도 장관
함소화·거제왕짚레 등 희귀 봄꽃도 관람객들에 큰 인기

전남 최초 정원형 식물원인 해남 산이정원에서 금작화가 만개하는 5월을 맞아 31일까지 봄꽃페스타의 일환으로 ‘금작화 페스타’를 진행한다.
산이정원에 따르면 5월에 피는 밝은 노란색 꽃으로 ‘노란 참새가 무리지어 있는 듯 없는 듯 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금작화는 산이정원의 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꽃으로 5월 중순부터 정원 곳곳에서 만개하기 시작했다.
산이정원의 금작화 군락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원을 채우고 있다.
산이정원 산책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금작화 군락은 마치 황금빛 파도가 출렁이듯 장관을 이뤄

방문객들이 마치 동화 속 정원을 거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봄의 산이정원에는 금작화 외에도 보기 드문 희귀 봄꽃들이 있다. 바나나와 사과를 섞은 듯한 달콤한 향을 풍기는 ‘함소화(바나나수림)’, 일반 짚레꽃보다 꽃 크기가 크고 화려한 ‘거제왕짚레’ 등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식물들은 식물 애호가들은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산이정원은 단순히 꽃을 감상하는 축제에서 벗어나 정원 전체를 살아있는 전시관으로 만드는 체험형 자연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산이정원이 올해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

정된 만큼 이번 봄 시즌에는 꽃 중심의 일회성 전시를 넘어 정원 속에서 희귀 식물을 온전히 경험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정원형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산이정원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공동 선정한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서 미래형 정원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개장 1주년을 맞아 ‘첫 봄 페스타’ 프로그램과 ‘1주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람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산이정원 관계자는 “이번 5~6월 금작화 시즌은 산이정원의 진면목을 경험할 수 있는 봄의 절정기”라며 “미술관·카페·어린이 자연놀이터 등 복합 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의 산이정원이 31일까지 봄꽃페스타의 일환으로 ‘금작화 페스타’를 연다. 산이정원에 만개한 금작화.

영광군 재생에너지로 ‘인구 10만 자립도시’ 꿈꾼다

태양광·풍력 최적 조건 활용
에너지 중심도시 전환 본격화

영광군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도형 성장 모델을 제시하며, ‘인구 10만 자립 도시’ 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같은 자연 자원을 에너지 산업으로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단지와 고용 창출, 인구 유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광군은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신재생에너지의 최적지다. 연간 일사량은 4.0~4.2kWh/m²에 달하고, 평균 풍속은 6.0m/s 이상이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모두에 적합한 조건으로 여겨진다.
영광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다수의 민간 및 공공 에너지 기업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군은 이런 천혜의 자연 여건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에너지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첫걸음은 전력 생산이다. 해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본격화함으로써, 영광은 자체 에너지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지 역할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생산된 전력을 중심으로 배후 산업단지와 물류·정비 기능을 갖춘 거점기지를 조성하고, 나아가 관련 기업과 기관 유치에 나선다는 복합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O&M(Operation & Maintenance) 거점기지’ 구축은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해상풍력 유지관리 기능을 갖춘 이 기지는 부품 정비, 기술 지원, 선박 관리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함께 수반



영광에 조성된 태양광 시설 전경.

〈영광군 제공〉

한다. 에너지 산업의 전 과정이 이뤄지는 클러스터로 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원칙으로 전력 소비 구조도 변화시키려 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고, 에너지 생산지로서의 혜택을 주민과 기업에 돌려주는 전력 요금 차등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력 사용 비용이 낮아져, 기업으로서 영광이 매력적인 입지 조건을 갖춘 산업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지정으로 이어진다. 영광군은 에너지 생산·소비·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단위 산단 지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첨단기술, 수소 산업, AI 및 데이터센

터 등 전력 다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처럼 단계를 밟아 추진되는 전략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나아가 인구 증가라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것이 군의 목표다. ‘인구 10만 자립 도시’는 에너지에서 시작해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까지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종합 계획인 셈이다.
영광군은 “에너지는 더는 대규모 사업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영광이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사슬을 만들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해남군, 농촌유휴시설 카페·마을호텔 바꾼다

현산면·북평면 6개소 9억원 투입
창업공간·카페·휴게공간 탈바꿈

해남군이 농촌의 유휴시설을 대상으로 마을에 활력을 이끌어 낼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해남군은 현산면과 북평면 등 6개소에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유휴시설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에 따른 것이다. 농촌유휴시설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 및 귀농·귀촌인 등의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 등으로 활용해 농촌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현산면은 옛 예비군 중대건물을 리모델링해 1층

은 카페 및 휴게공간, 2층은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소규모 미디어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이며 6월 착공,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북평면에는 동해마을과 이진마을에 있는 빈집 5동을 마을호텔로 조성한다. 마을 경관이나 위생, 안전성 측면을 개선하면서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건축공사를 실시하고, 하반기까지 5동 전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 빈집 등 유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유휴시설을 활용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다음달 27일까지 영상 콘텐츠 공모전

목포시가 지역의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2025 목포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목포를 소개하고, 지역 관광 자원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6월 27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목포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로운 영상’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매력적인 관광지, 특색 있는 음식 등을 소재로 한 3분 이내의 영상 콘텐츠가 공모 대상이다.
웹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형식 제

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총 5편의 우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상금은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1명) 100만원, 장려상(3명) 각각 50만원이다.
접수는 이메일(seonju2780@korea.kr)을 통해 진행되며, 수상작은 7월 15일 개별 통보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작은 목포시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되며, 시의 관광 홍보 및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맨손 낙지 잡고 싱싱한 수산물 할인 구입

신안군, 23~24일 섬 낙지축제

신안군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압해읍 송광항 일원에서 ‘제10회 섬 낙지축제’를 개최한다.
천사대교를 배경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맨손 낙지잡기 체험, 낙지회초모임 시식 행사, 지역민이 참여하는 풍물·난타 공연, 관광객 노래자랑 등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특히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우럭, 농어, 전복, 마른 김 등 지역 수산물 할인 판매장에서 질 좋은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김영국 낙지축제 추진위원장은 “신안 낙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 갯벌에서 자란 최고의 수산물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이번 축제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 서비스’ 운영

진도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오는 27일 진도군청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한다.
진도군에는 지난해에 84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서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했고 올해는 1017명이 예정돼 순차적으로 입국 중이다.
진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출입국사무소 민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표출장소가 하루 동안 직접 진도군을 방문해 민원 업무를 현장 처리한다.
당일에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허가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 업무이며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도 가능하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영암군, ‘120만원’ 청년월세 지원...30일까지 참여자 모집

영암군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의 지역 안정정착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월세는 19~49세의 1인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민이고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두 조건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발하고 최종 지원자에게는 올해 1월 임차료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예선

지난 18일 (사)세계여성평화그림(IWPG) 주최로 입암산 생태공원에서 열린 ‘제7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예선에서 어린이들이 모여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다.

무안군, 2025년 지방세정 평가 장려상 수상

무안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정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정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등 3개 분야 29

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은 ▲세수 확충 분야(7개 항목) ▲세외수입 분야(5개 항목) ▲지방세정 분야(17개 항목)로 구성됐다.

무안군은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추징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등 적극행정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무안군은 2025년도 지방세정 업무에 필요한 인센티브 예산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